

도시공간의 범죄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

김영환*, 장동국**, 문정민***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rime in urban space -Gwangju metropolitan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vironmental criminology-

Kim, Young Hwan *, Chang, Dong kuk **, Mun, Jeong Min ***

요약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황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빈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rather on the crime occurrence of target area's space scope than on the approach to the cause of specific area's crime occur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vironmental criminology emphasizing the crime prevention. By observing the composition of crime distribution, it is intended to search the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actually corresponded to the crime problems. For this, after segmenting the city into six sectors, targeting city crim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04, the basic materials about the crime frequency are analyzed through dividing the types on the base of the present state of crime occurrence, the types of crime, the locations of crime occurrence, the purposes of buildings, the types of intruders, the forms of intrusions. As a result of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 activation method of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ommunity crime prevention.

▶ Keyword :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도시범죄(city crime), 범죄발생(crime occurrence), 범죄분포(crime distribution), 범죄빈도(Crime frequency)

• 제1저자 : 김영환 • 교신저자 : 장동국 • 공동저자 : 문정민
• 접수일 : 2007. 10.2, 심사일 : 2007. 10.10, 심사완료일 : 2007. 11.10.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01-2006-000-11177-0).

I. 서론

도시문제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실업, 빈곤, 주택난, 교통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문제점들 이외에도 생활환경의 악화와 범죄라는 도시문제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대 도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1]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범죄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범죄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범죄학은 범죄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환경범죄학에서의 범죄발생 장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장소의 환경적 여건이 범죄자로 하여금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범죄효과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지역이나 대상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범죄기회구조라고 한다. 범죄기회구조란 예비 범죄자가 판단하는 일종의 범죄수행 동기로서 범죄가 예측하는 범죄의 난이도, 그리고 범행 시 발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범죄의 부정적 조건보다 범죄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이득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2] 환경범죄학에서는 범죄기회구조가 환경계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 이러한 환경개선을 통한 사전 범죄예방은 범죄발생 이후의 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진압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 총 6개 지역-저층주택지역, 아파트, 근린상가지역, 오피스지역, 유흥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범죄발생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2004년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발생장소 및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환경범죄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환경범죄학의 대두

1970년 이후 지리학자들의 고유의 연구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이란 요소를 고려한 범죄연구가 이루어

어지면서, 범죄자의 동기와 원인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와 범죄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범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주위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이 등장했다. 범죄의 공간분석과 이에 따른 범죄예방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면서 등장한 환경범죄학은 지역환경에는 범죄자가 반응하려는 단서가 존재하며 범죄사건은 지역이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반응이라는 가정 하에서, 범죄사건과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환경에서 설명의 기초를 찾으려한다. 일상활동이론을 확장한 연구로 볼 수 있는 환경범죄학은 범죄연구에서 장소에 중심적인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Brantigham(1981)에 의해 제시되었다.[4] 그들은 범죄가 법, 범죄자, 목표물, 장소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범죄의 4가지 차원 중 법, 범죄자 그리고 목표물이 상호작용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환경범죄학의 관심분야는 범죄자보다는 범죄에 있고, 장소의 특성과 특정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다.[5][6]

1.2. 환경범죄학의 특징

지역환경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은 범죄발생의 원인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과 같은 요인들에서도 기인한다고 주장한 뉴만의 방어공간이론과 관련이 있다.[7] Newman의 방어공간 연구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역할을 정립시켰고 실제적인 설계에 이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디자인 특징에만 편향되어 범죄발생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을 통합하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동주택에서의 방어공간개념은 지역사회 전체, 특정구역, 교육기관, 교통수단 등과 관련시켜 그 범위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설계에 주민참여, 경찰활동의 요소를 첨가시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환경은 사람들이 사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환경설계란 환경자체에 밀접하게 연관된 변수들을 조합함으로써 특정범죄나 두려움을 예방하려는 기법이다. CPTED는 특정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전통적 범죄예방 모델보다는 대상지역의 범죄경향, 물리적 특징,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물리적 설계, 사회단체와의 연계, 경찰과의 연계를 포함한 범죄예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다.[8]

환경범죄학에서는 범죄자보다는 범죄에, 그리고 범죄자를 만드는 조건들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 또는 환경을 강조한다.[9] 환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특이한 환경조건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체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의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 차이의 구별이 무색하게 된다고 해석하였고, 누구나 범죄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의 뚜렷한 구별이 없으며, 장소는 어떤 곳이 다른 곳보다 취약하면 그곳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주는 지역환경 요소들을 차단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환경범죄학의 영역에서 범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GIS와 범죄 지도화(crime mapping)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주로 시도되었다.[10]

III. 최근범죄의 경향분석

3.1. 최근범죄의 특징

최근의 범죄특징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11][12]

3.1.1. 최근 범죄의 양적 경향

(1) 사이버범죄의 증가

정보통신 기반산업(IT)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고유범죄는 물론, 통신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 일반범죄유형도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3천 3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 비율은 6-19세가 97.8%, 20대가 97.9%, 30대가 91.0%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기반은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이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첨단화·국제화됨으로써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총 88,731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여 2001년과 비교하였을 때 단기간에 약 167%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피해가 36,436건 발생하여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피

해는 21,389건 발생하였다. 특히 PC방 문화가 발달하면서 범행 후 쉽게 도피할 수 있는 PC방을 이용한 범죄가 13,196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2) 절도범의 증가

2005년의 경우에 5대 범죄에 대한 2004년의 발생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절도 21.5%, 강도 5.3% 증가한 반면에, 살인 2.0%, 강도 11.4%, 폭력 0.4% 감소하는 등 2004년 대비 5대 범죄의 전체발생건수는 7.0% 증가하였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최근의 절도 원인은 주로 유흥비 또는 휴가비 마련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양상이 판이하다. 한편 또 다른 생계형 범죄인 강도도 야만적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절도에서 강도로, 강도에서 강간으로 돌변 등),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범죄이다.

(3) 재범율의 증가

2005년의 경우에 검거된 범죄자의 53.5%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19.9%로 나타났다. 중요범죄의 재범상황을 살펴보면, 동종재범이 37.2%이고, 이종재범이 62.8%이다. 또한 방화 70.4%, 강도 65.2%, 살인 62.7%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재산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에 대한 재범의 주된 원인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갱생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수용이 쉽지 않아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사회환경에 새로이 적응치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통과예나 심지어 필수코스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분류처우나 직업훈련 등이 재범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교화·갱생 및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여성범죄의 증가추세와 소년범죄의 심각성

2005년 여성 및 소년 범죄자수는 총 412,322명으로 전체범죄자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거된 범죄자 100명 중에서 여성이 약 16명, 소년이 약 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는 328,845명으로 지난 해 400,714명에 비해 17.9% 감소하였고, 소년범죄자는 83,477명으로 지난 해 86,861명에 비해 3.9% 약간 감소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던 여성범죄자의 수가 올해 들어 8만여 명이나 감소한 것은 서민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여 진다. 한편 소년범죄에 대

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 및 예방·선도활동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소년인구의 감소 등이 소년범죄자 감소추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1.2. 최근 범죄의 질적 경향

범죄의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최근의 범죄동향이 저연령화, 광역화, 지능화, 흉악화, 국제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범죄문제는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등의 소유가 급증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범죄의 발생지역이 더욱 광역화 되고 있으며, 컴퓨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수법의 지능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범행의 동기를 뚜렷이 알 수 없는 동기없는 살인, 방화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범죄동향으로 꼽을 수 있다.[13]

3.2. 최근범죄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15년 동안의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 범죄발생건수는 1990년 683,474건에서 2004년 1,200,300건으로 15년간 75.6% 증가 하였고, 인구 대비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중 1,597건에서 2,496건으로 56.3% 증가 하였다. 연도별로는 1991년 728,570건, 1993년 842,705건, 1995년 903,718건, 1996년 941,933건 등 199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후 1997년 들어 934,933건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 1,081,669건, 1999년 1,104,946건, 2000년 1,203,467건, 2001년 1,216,50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2년에는 1,158,144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1,190,948건, 2004년에는 1,200,3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범죄증가 추세는 또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검거건수는 1990년 572,826건에서 2004년 995,487건으로 지난 15년간 73.8% 증가하였다. 검거율은 199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 87.8%의 검거율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83%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인원은 1990년 827,993명에서 2004년 994,477명으로 지난 15년간 20.1% 증가하였다.[15]

표 1. 교통범죄를 제외한 검거발생·검거현황(1990-2004년)
Table 1. Arrest occurrence and present state excluding the traffic crime(1990-2004년)

구분 연도	발생 건수	검거건수	검거 율 (%)	검거인원	총인구 (단위: 1,100명)	인구비 (인구 100,000 명당 발생건수)
1990	683,474	572,826	83.8	827,993	42,793	1,597
1991	728,570	638,636	87.7	905,137	43,268	1,684
1992	739,154	641,569	86.8	927,226	43,663	1,693
1993	842,705	789,796	93.7	1,126,678	44,056	1,913
1994	870,758	768,491	88.3	1,079,047	44,453	1,959
1995	903,718	777,845	86.1	1,080,074	44,850	2,015
1996	941,968	815,966	86.6	1,116,557	45,247	2,082
1997	934,933	805,764	86.2	1,129,933	45,991	2,033
1998	1,081,669	957,946	88.6	1,310,947	46,430	2,330
1999	1,104,946	1,027,390	93.0	1,431,882	46,858	2,358
2000	1,203,467	1,012,148	84.1	1,447,522	47,274	2,545
2001	1,216,504	1,004,203	82.5	1,447,790	47,343	2,569
2002	1,158,144	1,017,112	87.8	1,432,853	47,640	2,431
2003	1,190,948	976,505	82.0	1,361,708	47,925	2,485
2004	1,200,300	995,487	83.0	994,477	48,082	2,496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IV. 도시범죄 자료분석

4.1. 범죄발생 조사지역의 공간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1개 도시를 대상으로 범죄 발생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범죄발생 자료는 광주광역시의 시가화 구역을 중심으로 1개의 구역이 1.1Km2 면적을 갖는 6개 구역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도시의 각 6개 구역은 주된 토지이용 패턴이 저층주택중심지역, 아파트중심지역, 근린생활시설중심지역, 오피스중심지역, 유흥시설중심지역, 공장중심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토지이용패턴상 도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4.2. 기초범죄 자료분석-광주광역시-

4.2.1. 5대 범죄발생 유형

본 연구의 기초 자료인 범죄발생 자료는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4년도 1년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5대 범죄발생 자료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대 범죄 가운데 범죄발생 유형은 절도가 평균 9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도가 3.3%로써 전체 발생량의 96.6%를 차지한다. 절도 및 강도는 도시민의 범죄 피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임을 알 수 있다.

표 2. 광주광역시의 5대 범죄발생 유형
Table 2. Five crime occurrence typ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유형	절도	강도	강간	살인	방화	합계
건수	9,072 (93.3%)	323 (3.3%)	268 (2.8%)	29 (0.3%)	35 (0.4%)	9,727 (100.0%)

2) 범죄발생율

광주광역시의 인구 및 물리적 규모, 범죄 발생율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범죄 발생율을 범죄 발생 1건당 세대수 및 인구수로 살펴보면 낮은 수준의 범죄 발생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인구 및 범죄 발생율
Table 3. Population of 3 cities and crime occurrence rates

해당 지역	세대수	인구	인구 밀도	연적(평방 킬로미터)	세대 당 인구	범죄발생 1건당세대 수*	범죄발생 1건당 인구수*
광주시	469,847	1,406,915	2,806	501	2.99	50	150

*범죄(절도 및 강도)

**시가지지역

3. 기본 데이터분석

범죄발생 기본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첫째, 범죄발생 현황은 ①계절별, ②월별, ③시간대별로, 둘째, 범죄유형은 5대 범죄, 즉 ①절도, ②강간, ③강도, ④살인, ⑤방화에 대하여, 셋째, 범죄 발생 위치는 ①차량, ②건물, ③공터, ④가로에 대하여, 넷째, 건물의 주요용도는 ①주택지역, ②유흥지역, ③공장지역, ④근린생활지역, ⑤오피스지역, ⑥아파트지역에 대하여, 다섯째, 침입자 유형은 ①불상인과 ②면식인에 대하여, 여섯째, 침입형태는 ①공용접근, ②강제침입, ③양해접근의 형태에서의 범죄발생건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의 각 지역에 대한 범죄발생 기본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절별 범죄빈도

계절별 범죄빈도는 여름에 139건(28.4%), 봄에 123건(25.2%), 가을에 115건(23.5%), 112건(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범죄발생분포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4계절의 범죄발생율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이 5%가량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커다란 차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표 4>는 여름의 다소 높은 발생율이 월별로 살펴볼 경우 6-8월까지 해당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범죄 발생은 4계절을 통해 23%-28%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 경향을 보여준다.

표 4. 계절별 범죄빈도
Table 4. Crime frequency by seasons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합 계
응답수 (%)	123 (25.2)	139 (28.4)	115 (23.5)	112 (22.9)	489 (100)

2) 시간대별 범죄빈도

시간대별 범죄빈도는 12:00-40:00, 20:00-22:00에 112건(22.9%)으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6:00-20:00시에 101건(20.7%), 80:00-12:00시에 61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를 4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새벽 4-8시에 가장 낮았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가장 높은 발생율(45%)을 보여준다. 5대 범죄는 주로 새벽 4시 이전의 야간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시간대별 범죄빈도
Table 5. Crime frequency by time zones

구 분	12:00 - 04:00	40:00 - 08:00	80:00- 12:00	12:00- 16:00	16:00- 20:00	20:00 - 22:00	합 계
응답수(%)	112 (22.9)	45 (9.2)	61 (12.5)	58 (11.9)	101 (20.7)	112 (22.9)	489 (100)

3) 범죄유형별 범죄빈도

범죄유형별 범죄빈도에 있어서는 절도범죄가 467건(95.5%)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교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절도가 93%로써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절도 발생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전 조사 및 경찰청의 원천 자료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도시내 범죄 발생율의 예측은 절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 범죄유형별 범죄빈도
Table 6. Crime frequency by the types of crime

구 분	절도	강도	강간	방화	합 계
응답수(%)	467(95.5)	8(1.6)	11(2.2)	4(0.6)	489(100)

4) 범죄발생위치별 범죄빈도

범죄발생위치에 따른 빈도에서는 건물에서 290건(59.3%), 가로에서 158건(32.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 발생위치별 범죄대상은 주로 건물(61%)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절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로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8%를 차지한다. 차량이 공공적인 접근이 가능한 가로에 주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가로에서의 범죄 발생을 또한 건물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발생위치별 범죄빈도
Table 7. Crime frequency by the locations of crime occurrence

구 분	가로	건물	공터	차량	합 계
응답수(%)	158(32.3)	290(59.3)	4(0.8)	37(7.6)	489(100)

5) 침입자 유형별 범죄빈도

침입자 유형별 빈도에서는 예상하는 대로 면식인보다는 불상인이 460건(94.1%)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침입자 유형별 빈도
Table 8. Crime frequency by the types of intruders

구 분	면식인	불상인	합 계
응답수(%)	29(5.9)	460(94.1)	489(100)

6) 침입형태에 대한 범죄빈도

침입형태에 대한 빈도에서는 공용접근이 261건(53.4%), 강제침입이 206건(42.1%), 양해접근이 22건(5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은 침입자 형태별로 살펴볼 경우 건물과 차량으로의 강제침입과 공공적인 접근이 가능한 가로나 공원과 같은 공용접근의 비율 차이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침입자의 대부분은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상인

(94%)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표 9. 침입형태 범죄빈도
Table 9. Crime frequency by the forms of intrusions

구 분	강제침입	공용접근	양해접근	합 계
응답수(%)	206(42.1)	261(53.4)	22(4.5)	489(100)

7) 건물용도에 따른 범죄빈도

건물용도에 따른 범죄빈도에서는 근린상가가 250건(5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택에서 139건(28.4%), 아파트에서 53건(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유형의 93%는 절도로서 절도의 절대 다수가 주거와 관련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아파트에서 발생(90%)하고 있음을 건물 용도별로 범죄 발생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범죄의 51%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범죄 발생율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가 주로 금품탈취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린상가는 상가와 상가주거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범죄기회로의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과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39%의 발생율로써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절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6%정도의 낮은 범죄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발생율은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오피스와 공장은 대부분 방범 장치 및 관리인에 의해 자연 및 인위적 감시 통제 및 제어가 원활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발생율을 나타낸다.

표 10. 건물용도 범죄빈도
Table 10. Crime frequency by the purposes of buildings

구 분	주택	아파트	근린상가	오피스	유흥지역	공업지역	합 계
응답수(%)	139(28.4)	53(10.8)	250(51.1)	23(4.7)	16(3.3)	8(1.6)	489(100)

V. 결 론

본 연구는 환경범죄학의 측면에서 도시공간의 범죄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를 표본으로 하여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

형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문제 중 범죄는 지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범죄의 위협요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방향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향후 경찰은 지역치안인력을 극대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부단한 순찰과 치밀한 검문검색 등 지역경찰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임무수행과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살피고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활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환류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6] 나아가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해 놓은 주거공간으로서 방어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과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경계는 주민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최현아, 범죄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영등포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김창운, 203.

[2] 박강철,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p.36, 1995.

[3] 서덕환, 주택지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1994.

[4] Brantigham, P.J. and Brantigham, P.L., Residential Burglary and Urban Form, Urban Studies, Vol.12, pp.273-284, 1975.

[5] Herbert D.T. and Hyde S.W., Environmental Criminology: Testing Some Area Hypothes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0, pp.261, 1985.

[6] 최현아, 전계논문, p.16.

[7] Newman, O., Defensible Space, Collier Books, 1972.

[8] 최열·김효숙·임하경, 공동주택의 범죄발생 실태 및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부산진구 사례 중심으로 -, 「도시연구보」, 제15집, p.27, 2003.

[9] Herbert D.T. and Hyde S.W., Environmental Criminology: Testing Some Area Hypothes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0, pp.261, 1985.

[10] 최현아, 전계논문, p.17.

[11] 경찰청, 「2006 경찰백서」, pp.206-212, 2006.

[12] 강맹진·김진철, 「현대사회와 범죄」, pp.89-91, 2007.에서 재인용.

[13]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p.38, 2004.

[1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pp.27-28, 2005.

[15] 법무연수원, 전계서, p.30.

[16]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p.349, 2005.

[17] 허경미, 상계서, p.342.

저자 소개



김영환
2000년 8월, 조선대학교
행정학박사
2005년~현재,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동국
1998년, 영국 런던대
공학박사
2000년~현재,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문정민
2004년 2월, 경상대학교
공학박사
2001년~현재,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